

관광객 사로잡는 길림성 '빙설+' 콘텐츠 여전히 인기

야간 스키·온천 다채로운 즐거움 가득



길림성 길림시 북대호스키리조트 산자락에 자리한 농가락, 호북에서 온 관광객 리향이 아침식사를 마친 후 스키 장비를 정리하고 있다. 그는 "어제 밤에 큰 눈이 내려 빨리 분설을 즐기러 가고 싶다."고 말했다. 가루 형태의 분설은 스키에 호기들에게 '최고의 눈'으로 평가받는다. 최근에는 야간 스키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장춘시정정 산스키장은 야간 스키를 즐기러 온 스키어들로 줄을 잇는다. 대부분 낮에 일하고 밤에는 스키를 타는 젊은이들이다. 장효봉은 "지금 스노보드 기술

을 연습중"이라면서 "낮에는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저녁에 연습하러 온다."고 밝혔다. 그는 티켓, 갑옷, 장비 등을 포함해 스키 시즌 한번에 1만원 넘게 쓴다고 덧붙였다. 메이탄의 여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스키장 야간 스키'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 대부분 25~30세의 젊은 소비자가 주축을 이룬다. 천정산스키장의 정상에 서면 오색 찬란한 조명이 빙설왕국을 방불케 하는 장춘빙설신천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길이 520미터의 얼음 슬라이드와 1,314미터의 눈썰매장에서는 사람들

의 즐거운 비명이 들려온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울겨울 들어 장춘빙설신천지의 루직 방문객수는 34만 8,500명, 매출은 4,938만 4,200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9.79%, 37.06% 증가한 규모다. 천정산스키장의 루직 방문객수는 12만 8,800명, 매출은 2,258만 9,600원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빙설+스파'가 새로운 빙설관광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빙설관광을 즐긴 후 온천욕을 하며 동북지역의 목욕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젊은층에서 각광받고 있다. 이에 '스키+온천' 패키지를 출시하는 스키장

도 많아졌다. 장춘시에서는 빙설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소비 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다. 세계조각공원은 '빙설 조형쇼'를 새롭게 선보이며 인증샷 명소로 떠올랐다. 남호공원의 호수 우에는 거대한 얼음용조각이 등장하고 민속설촌(雪村)이 조성돼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끌고 있다. 길림성상무청에 따르면 길림성은 오는 3월까지 빙설 소비 시즌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빙설 소비 잠재력을 더욱 자극하기 위해 3,000만원 규모의 빙설 소비 쿠폰도 발행할 예정이다. / 신화사

훈춘통상구 출입국 관광객 60만명 돌파

훈춘통상구로 입국하는 국제관광객들이 연일 급증하고 있다. 특히 로씨야 입국관광객이 끊임없이 증가해 겨울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음력설과 로씨야력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훈춘시를 찾는 로씨야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훈춘 시내의 여러 호텔과 식당들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다. 하바롭스크에서 온 로씨야 관광객 올리는 훈춘시를 여러번 다녀갔으며 도시가 깨끗하고 시민들이 관광객을 친절하게 맞이하며 호텔이 편안하고 마음에 드는 음식도 먹을 수 있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훈춘을 추천하고 그들과 함께 이곳에서 휴가를 보낸다고 말했다.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로씨야에 개방된 료북통상구인 훈춘통상구는 로씨야 자르비노, 포세트 등 도시로 직통할 수 있으며 편리한 교통은 국경을 넘나드는 관광에 큰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빙설관광 열기가 지속적



룡정산문화관광구 음력설 기간 연 23만여명 접대

음력설 연휴 기간 룡정산문화관광공원은 연 23만 100명의 관광객을 맞이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음력설 기간 룡정산은 입장권을 구매하면 행운구슬(转运珠)을 선물하고 금옥만당복단(金玉满堂福蛋)을 맛보고 룡정산 선차(禅茶)를 마시는 혜택을 제공하고 행운회전판, 구궁격으로 룡정산 즐기, 곡일절(谷日节) 민속행사 및 눈세계 빙설관광 대상 야간 개방 등 다

정치·과학기술·문화가 결합된 겨울 경제 활력 '뽐뽐'



▲ 지난달 5일, 힐빈시 빙설대세계 단지에서 여행객들이 얼음미끄러움틀을 타고 있다.

눈발 질주, 온천욕, 얼음조각 감상... 아름다운 경치, 과학기술, 문화가 결합된 겨울 경제가 생기와 활력을 더하고 있다. ◆ 새해맞이 화려한 빙설 행사의 향연 "눈이 와요! 빨리 스키 타러 가야 해요!" 일곱살 하월기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해남에 사는 하월기는 올해 음력설 부모님과 함께 신강 우룸치 현에 위치한 실크로드산지리조트에서 스키를 타며 연휴를 보냈다. 장홍 실크로드산지리조트 브랜드센터 매니저는 "스키장의 주간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고 야간 방문객은 네배로 늘어 호텔도 거의 만실"이라며 "광동, 사천, 중경, 산서에서 온 스키에호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리조트는 주변 관광 명소 방문과 눈놀이 패키지 상품 등 '원스톱' 스키 체험을 통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힐빈시에 위치한 빙설대세계에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얼음조각상 사이를 거닐다 보면 마치 꿈속 동화나라에 있는 듯하다. 지난해 겨울부터 힐빈의 매력에 널리 알려지면서 이곳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늘고 있다. 힐빈오렌지휴가관광회사 사장 왕홍훈은 올 1월 이후 회사는 오스트랄리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국가(지역)에서 온 100여팀의 단체 여행객들을 맞이했다고 소개했다. 눈밭에서 신나게 즐긴 후 온몸을 편안히 이완시키는 '스키+사우나' 상품은 남쪽지역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동북

지역 빙설 여행의 대표 상품 중 하나다. 내몽골 우란차부시에 자리한 우란하다화산지질공원은 겨울 설원에 크고 작은 30여개의 화산군이 장관을 이뤄 많은 관광객의 발걸음을 사로잡고 있다. ◆ 과학기술을 더해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체험 3초면 따뜻한 열이 퍼지는 목도리, 마스크트 '빈빈', '니니' 쿠션 담요... 음력설 기간 힐빈시 중앙대가에 위치한 동계아시아게임 공식 상품 판매점의 다양한 신제품이 관광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힐빈 빙설대세계의 문화관광 프로젝트는 관광객들에게 중국 신화를 배경으로 한 '빙하 우주'를 볼 수 있는 가상현실(VR) 몰입형 체험을 제공한다.

빙설을 주제로 한 문화관광 메타버스 제품은 출시되자마자 많은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길림성의 많은 스키 장비 대여소에서는 탄소섬유 스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스키는 길림화선그룹이 연구 개발(R&D)한 것으로 초경량, 고강도, 내저온, 항부식 등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밖에 3D 프린팅 맞춤형 헬멧, 발목 위치에 따라 임의로 모양을 변경하는 스케이트화를 개발했으며 관광객들은 VR 장비 착용 후 스키, 얼음조각 창작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빙설 장비는 더욱 업그레이드되었고 빙설 공간은 더욱 혁신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 빙설경제와 인문의 융합 발전

길림성 송원시 차간호에서 펼쳐지는 겨울낚시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 프로젝트다. 지금까지 인공 얼음 구멍 뚫기, 말이 끄는 캡스틴(선박)의 계류 바줄을 전통으로 감아주는 장치, 얼음물속으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는 등 전통적인 낚시법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차간호관광지는 연간 총 347만 1,600명의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관광 종합 매출은 30억 5,500만원에 달했다. 차간호 겨울낚시는 중국의 다양한 빙설 문화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전년을 이어온 차간호의 전통 낚시 문화 등 유구한 력사의 전통문화는 중국 빙설경제 발전에 풍부한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으며 겨울철 빙설세계에 매력적인 광만을 가져다주고 있다. / 신화사

연변박물관, 음력설 기간 관람객들로 문전성시



음력설 기간, 설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상서로움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대중들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하기 위해 연변박물관에서는 '박물관에서 다채롭게 설 보내기'를 주제로 일련의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단일했던 '전시'에만 그치지 않고 관람객들이 적극적으로 호응 교류하고 보다 많이 체험하며 그 속에서 배우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박물관에서 무형문화유산 체험하기' 활동에서 관람객들은 무형문화유산의 정교함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었는데 특히 '탁본(拓印) 인체'에서는 관람객들이 직접 탁본하고 인쇄하는 과정에서 전통 기예의 독특한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다양하게 펼쳐진 '칠색수업'은 재미로 충만되어 관심이 모아지면서 관람객들이 실선하는 가운데서 민족역사와 전통 기예에 대해 료해하도록 했다. 양력설부터 지금까지 연변박물관은 각 지역에서 온 관람객 연인원 8만 3,000여명을 맞이했으며 음력설 기간에만 하여도 연인원 2만 1,000여명이 이곳을 찾았는데 지난해 음력설 연휴에 비해 관람객수가 43% 가량 늘었다. 박물관에서는 또 70여차례의 각종 행사를 펼쳤는데 디지털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중시를 돌리고 틱톡 생중계 등 뉴미디어 전파 형식을 발전시켰다. 연변박물관 부관장 허가강은 "연변박물관은 연변의 문화 좌표로서 사람들이 연변을 료해하는 중요한 창구이자 연변을 대외에 홍보하는 명함장이기도 하다. 오늘날 박물관은 관광객들이 연변을 방문할 때 꼭 거쳐가는 핫플레이스로 되었다. 력사와 현대를 아우르고 문화와 생활이 융합된 연변박물관은 독특한 방식으로 연변의 이야기를 서술하며 중화민족의 문화 보물을 전승하고 있는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연변박물관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영화기자 / 사진 서대동